

북한의 법학 연구동향 및 연구자들

金東漢
(법과인권연구소 소장)

I. 서론

‘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시대와 체제에 따라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와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법이 시대적 산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정치적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법은 강자의 편에서 약자의 억압 기제로 작용하였던 때가 더 많았다. 북한의 법에 대한 시각도 예외는 아니다. 김일성은 ‘법은 사회경제제도의 반영이며 정치의 한 표현형식’이라고 강조하였으며,¹⁾ 법학사전에서는 ‘법은 지배계급에게 유리한 생산관계와 사회질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공포하고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그의 준수가 담보되는 행위준칙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²⁾ 따라서 북한에서 법은 ‘사회주의사회의 법이며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주권의 법’으로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진다.³⁾ 그리하여 ‘공화국 법은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라는 구호가 제시되기에 이른다.⁴⁾

연장선상에서 ‘법학’은 ‘국가 및 법률제도들과 그에 관한 사상 견해들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정의 하고 있다.⁵⁾ 그리고 사회과학의 한 부문과학으로서 법학임을 강조한다.

1)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제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141쪽.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1), 276쪽.

3)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제2권, 142쪽.

4) 방계문 외, 『공화국 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평양 :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5) 『법학사전』, 285쪽.

사회과학의 임무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이론적으로 일반화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더 깊이있게 론증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⁶⁾ 북한에서 법학이라는 학문이 사회과학의 한 부문으로 자리잡은 것은 철학, 역사학, 경제학 등과 더불어 정권수립이전 김일성종합대학 출범부터이다. 북한에 대학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 법학부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법과 법학의 중요성을 나름대로 인식하였다는 반증이다. 그 외에 평양법률대학과 사법성 법률학교가 일정한 기간 존재하였다는 자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여 오고 나아가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법학관련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이 유일하다. 그리고 연구기관으로는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가 활동 중이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법학의 학문적 성과물을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학)]와 대학교재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고,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는 [법학사전], [민사법사전], [국제법사전] 등 각종 법률관련 사전과 [법학논문집]을 출판하여 법학연구의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선중앙년감]을 통하여 지난 한 해의 연구성과를 개괄적으로 총 정리하여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학문으로서 법학이 60년 동안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시기별로 법학의 세부분야 중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었는가를 자료분석을 통하여 도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결과물을 통하여 북한 법학의 발전과정을 파악하고 연구동향 및 연구자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법학의 학문분류체계와 연구기관

1. 학문분류체계의 변화과정

1) 학술지 발간 기준 분류

6)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57쪽, 『법학사전』, 285쪽에서 재인용.

(1) [법학연구] 시기(1956년 1호, 2호 / 1957년 1호, 2호/1958년 1호, 2호)⁷⁾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한 반년간 학술지 [법학연구]에는 과학원 경제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실에서 주최한 법학 분과별 토론회(1956년 9월, 10월)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분류한 법학분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분과별 토론회 내용

분과	발표논문명	보고자
국가와 법의 이론 및 국가와 법의 역사 분과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의회적 방도의 리용과 관련하여 의회제도의 본질문제”	정진태, 유광록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 정권의 성격과 본질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김영배
국가법 및 행정법 분과	“국가관리악트의 분류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김상헌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 인민회의 대의원 소환 및 보충선거에 관한 립법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정형원
민법 분과	“우리 나라 가족법 초안 작성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민족적 관습에 관하여”	백준환
	“법령위반의 법률행위에서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관한 몇가지 문제”	사법성 일반재판 지도국
형법 분과	“반국가적 범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한락규
	“형법에서의 병합죄”	주명도(한락규 토 론, 손중설 반대로 론)
재판법 분과	“민사소송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준법성 보장을 위한 몇 가지 문제”	홍권오
국제법 분과	재일본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	김진태
	“동해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김진태, 주유순

7) [법학연구] 1958년 2호는 [법학논문집<법학연구> 연 No6호](1958년 10월 25일) 형태로 발간되었다.

(2) [민주사법] 시기(1958년 1호-6호, 1959년 1호-12호)

공화국 사법성 민주사법사에서 간행된 저널인 [민주사법]에 게재된 논문을 분야별로 보면 사법제도, 민사법, 형사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제사, 법의학이 중심을 이룬다. 내각의 한 부처인 사법성에서 정책적으로 간행한 저널이기 때문에 재판실무와 관련된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 [사회과학]시기(1973-1986)

사회과학은 1973년에 통권 제1호가 발간된 후 1974년부터 격월간으로 년 6회 발간되었다. 이 저널은 인문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학논문은 간헐적으로 보인다.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은 우리시대 새로운 국제법률관계형성발전의 근본원칙”(현규엽/1976년 제2호),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인민정권기관의 중요한 과업”(홍극표/1981년 제3호),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사회재산보호관리를 잘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정연수/1983년 제1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는 주체의 법무생활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불후의 고전적 문헌”(한석봉/1983년 제3호), “은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는 것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요구”(안천훈/1983년 제3호),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조직지도하는 것은 인민정권의 주되는 기능의 하나”(김봉철/1983년 제3호),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혁명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홍극표/1983년 제6호), “주체의 법리론”(최홍락/1985년 제1호), “법적통제에 관한 리론”(홍극표/1985년 제1호), “사회주의법과 법건설의 기초 원리”(심형일/1985년 제2호), “사회주의법은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위력한 수단”(서창섭/1985년 제6호), “합영법의 규제내용과 특징”(김영철/1985년 제6호) 등이 전부이다. 이 시기에는 주로 사회주의법무생활리론분야가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4)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시기(1956-현재)

김일성종합대학 학보를 기준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몇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김대학보는 초기(1956년 6월(통권 1호)-1957년 7월(통권 3호))에는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논문이 한 논문집에 통합되어 간행되었다. 통권 4호인 1958년 7월호부터 자연과

학과 사회과학이 분리되어 학보가 발간되었다. 이 시기에는 법학관련 논문은 두편이 확인되었다. 즉, “공화국에서의 형사법령의 발전과 인민민주주의제도의 공고화”(1956년 통권 1호), “당의 사법정책의 관철을 위한 형사법적 제 문제”(1958년 통권 5호)가 그것이다. 그 이후 1964년 4월호(통권 21호)부터는 남조선연구, 외국어문, 경제학, 역사·철학, 지리학 등으로 세분화하여 발간되었다. 1982년 3호(통권 149호)부터는 다시 사회과학 통합본으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사회과학]으로 발간되었다. 그 이후 1991년부터는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역사·법학, 어문학 등 4개분야로 구분하여 1993년까지 통권에서 순차적으로 발간하여오다가, 1994년부터는 철학, 역사법학, 경제학, 어문학 등 4개분야별로 권호수를 지정하여 발간해오고 있다.

그 중 역사·법학으로 편제가 된 시기에는 법이론, 법률조종학, 헌법, 행정법, 민법, 가족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경제관련법, 대외경제관련법, 중재법, 국제법, 자본주의법비판, 남조선법 비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조종학의 주요연구대상인 국가법률체계는 부문체계를 립법체계(법제정체계, 법해석체계), 재판체계, 검찰체계, 법무체계, 행정체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⁸⁾

이 시기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학제적 연구인 법률조종학의 등장이다. 이에 대해 북의 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 시기 법률과학분야에서는 수학, 조종학, 정보학과 같은 자연과학, 기초과학과 결합하여 형성된 새로운 경계과학인 법률조종학이 출현하여 발전하고 있다.”⁹⁾ 이와 관련하여 ‘법률모형’이라는 개념이 법학연구에도 활용되었는데 법률모형이란 ‘실제적인 법률적 현상과 과정을 추상화하여 새롭게 묘사한 대상’을 의미한다.¹⁰⁾

(5) [정치법률연구] 시기

정치법률연구는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2003년부터 발간되는 정치법률관련 잡지이다. 김대학보와 마찬가지로 계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 잡지는 창간사에서 김정일의

8) 김원출, “국가법률체계의 부문체계들에 대한 법률조종학적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제46권 제1호(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0), 56쪽-62쪽.

9) 김원출, “법률모형의 본질에 대한 조종학적 이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제47권 제2호(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1), 58쪽.

10) 김원출, 위의 글, 58쪽.

‘정치법률사상의 정당성과 과학성을 깊이 있게 해설론증함에 대한 절박한 시대적 요구’ 때문에 김정일국방위원장 추대 10돐을 기념하여 발간하게 되었다고 발간이유를 밝히고 있다.¹¹⁾ 이 잡지의 독자대상으로는 ‘정치학, 법률학부문에서 사업하는 교원, 연구사들, 현직일군들’로 하고 있다. 이 잡지에서 강조되는 분야는 법이론 중 사회주의법무생활리론,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법제사, 자본주의법 비판, 남조선법 비판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 2〉 학문분류체계의 변화과정

	(법학연구)	(민주사법)	(사회과학)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정치법률연구)
법이론	-국가와 법의 이론 -국가와 법의 역사		-사회주의법무생활 이론 -주체의 법이론	-법이론	-사회주의법무생활 이론
부문법	-국가법 및 행정법 -민법 -형법 -재판법 -국제법	-사법제도 -민사법 -형사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제사 -법의학	-헌법 -행정법 -민법 -가족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률조종학 -헌법 -행정법 -민법 -가족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경제관련법 -대외경제관련법 -중재법 -국제법 -자본주의법비판 -남조선법비판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법제사 -자본주의법비판 -남조선법비판

11) “창간호를 내면서”, 『정치법률연구』(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2쪽.

2) 부문별 분류

(1) 법학의 기본사명

법학은 사회과학의 한 부문과학으로서 김일성의 정치법률사상과 당의 국가 및 법건설 정책의 정당성을 논증하고, 국가 및 법률제도들을 이론적으로 일반화하여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고 본다.¹²⁾ 이러한 기본사명에 입각하여 ① 김일성의 정치법률사상해설, ② 국가 및 법건설 경험의 일반화, ③ 국가법률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이론실천적 문제 해결, ④ 인민정권과 법의 혁명적 뿌리를 연구, ⑤ 남조선의 통치기구와 법의 비판, ⑥ 국가와 법에 관한 맑스-레닌주의혁명적 진수를 왜곡하는 반혁명적 이론 비판, ⑦ 부르주아적 국가 및 법률사상들과 견해들의 반인민적 본질 비판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2) 분야별 분류 기준

개별적 법분야는 세분하여 국가법학, 형법학, 민법학 등으로 분류하여 부문법학이라 하며, 전반적인 부문법학에 공통적이며 기초적인 문제들을 연구하는 법학을 ‘국가와 법의 일반이론’과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과거의 국가법률제도들을 그의 발생발전의 견지에서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국가 및 법의 역사학, 과거의 정치법률사상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정치사상사로 분류하고 있다.¹³⁾

2. 연구기관의 변화과정

1) 연구기관의 시기별 변화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내각의 일원으로 사법성이 설치되고 그 산하기관으로 사법성 법률연구소가 설치되었다. 여기에서는 법률학교를 개설하여 법률전문가를 배출하였

12) 『법학사전』, 285쪽.

13) 위의 책, 285-286쪽.

고,¹⁴⁾ <민주사법>이라는 법학저널을 통하여 법학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사법성 법률연구소는 1959년 사법성이 폐지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1949. 2.5 학술용어사정위원회 법학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52.12.1 과학원이 개원되면서 경제법학연구소가 설치되었으며 법제사, 법학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55년에는 관련 대표적인 논문으로 1) ‘공화국에서의 인민주권원칙의 확립 및 발전’, 2) ‘국제법의 민주주의적 원칙의 발전 및 공고화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이 발표되었으며, <해방10주년기념법학논문집>이 출판되었다. 1956년에는 경제법학연구소(소장 부교수 윤행중) 법학 연구실 명의의 “공화국 농산물 예매계약에 대한 수사기관의 위치”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1957년에는 경제법학연구소 공동연구사업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및 법률제도”라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1961년에는 <법학논문집>을 출판하였다.

1964.2.17에는 사회과학원(원장 허석산)이 창설되고 경제법학연구소가 경제연구소와 법학연구소로 분리되었다.

현재 관련 기관으로는 사회과학원(원장: 태형철), 조선사회과학자협회(위원장: 양형섭), 조선민주법률가협회(위원장: 허명규), 조선중앙변호사협회(위원장: 리동석), 인권연구협회(위원장: 심형일) 등이 있다.

관련 국가기관으로는 내각 인민보안성(인민보안상: 최룡수), 중앙검찰소(소장: 리길송), 중앙재판소(소장: 김병률),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룡수), 국가학위학직 수여위원회(위원장: 곽범기) 등이 있다.

2) 김일성종합대학 법학과의 편제변화

1946.9.1 개교한 김일성대학은 법학과가 김일성대학 법학부(법학과, 경제학과)에 속하였다. 1년 후인 1947.9.1 개편 때는 김일성대학 경제법학부(법학과, 계획경제학과, 재정학과)에 속하였다가 1949.9.1 개편 때는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법학과(국가와법리론 강좌, 형법강좌, 민법강좌)로 독립되었다. 1951.11.20 전시하 학부와 강좌구성은 법학부

14) 이와는 별도로 중앙에 ‘사법원양성소’를 설치한 적도 있었다.

(국가와 법의 리론 강좌, 민법 강좌, 형법 강좌)로 되어 있었고, 내각 결정에 의한 과학 연구인 <전시하 종합대학의 과학연구사업>으로 법학부에서는 “조선과 소련 및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과의 관계는 새로운 유형의 국제관계이다”(김진태 교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의 지도적 역할”(리재도 교원) 등 7편을 수행하였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시기의 종합 대학(1953년 8월-1956년 9월)으로서 김일성 종합대학은 1953-1954학년도 초기에 법학부에 4개의 강좌(국가와 법 리론 및 국가법 강좌, 민법 강좌, 형법 강좌, 국제법 강좌)가 중심이 되었다.¹⁵⁾ 1954년 북한의 대학에서 법(정치)관련학과는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법학과, 송도정치경제대학 정치경제학과, 인민경제대학 국가건설학부 국가건설학과 등이었다. 현재 김일성종합대학(총장: 성자랍)은 법학부를 법률대학으로 승격시켜 운영하고 있다.¹⁶⁾

Ⅲ. 법학의 연구경향 및 연구자현황

1.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역사법학의 연구경향 및 연구자현황

1) 법이론분야의 연구경향 및 연구자현황

(1) 법이론분야의 연구경향

〈표 3〉 법이론연구의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	논문 및 저자
사회주의 건설에서 법의 역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법의 적극적 역할”(황금철) “사회주의법의 본질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그 필연성”(황금

15) 법학부의 조선국가법강좌는 국가 및 법리론강좌와 통합하여 국가와 법리론 및 국가법 강좌로 되었다(『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56), 119쪽).

16) 2001년도에 김일성종합대학의 학과편제에 변동이 있었는데 그 중 기존의 법학부는 법률대학으로 승격되었고, 법률대학내에는 법학과, 국제법학과, 정치학과 등 3개학과를 두고 있다(『조선신보』2001년 2월 5일).

주제별 분류	논문 및 저자
	철) “사회개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법의 주동적역할”(준박사 황금철)
사회주의법의 해석 적용문제	“사회주의법의 해석과 적용의 형태와 방법”(강현학) “사회주의법의 해석의 본질과 그 필요성”(강현학) “사회주의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주체의 사상리론”(교수.박사 김근식)
법과정치(도덕)의 호 상관계	“법과 정치의 호상관계에 대한 사상”(김경식) “법과 정치의 호상관계에 대한 학설사적개괄”(김경식) “법과 도덕의 호상관계에 대한 주체적리해”(박철) “법률관계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리해”(리경철) “사회주의법률관계의 본질과 특징”(리경철)
사회주의법무생활강 화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리론은 주체의 법리론을 더욱 완성시킨 독창적인 리론”(부교수.학사 리명일) “사회주의준법성실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학사 황금철)
사회주의법제사업	“사회주의법제사업의 본질과 기본내용”(진유현) “사회주의법제정의 합법칙성”(진유현) “언어의 표현적효과를 높이는것은 법제정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학사 리경철) “법제정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것은 법제정사업개선의 중요한 방도”(학사 리경철)
규범적 문건의 입법 기술적 문제	“규범적문건의 명칭을 정하는데서 나서는 립법기술적요구”(김정옥) “규범적문건의 본문작성과 관련한 립법기술적요구”(김정옥) “규범적법문건에서의 어휘사용과 관련한 기술실무적요구”(학사 리경 철) “법규정리에 대한 일반적리해”(학사 리경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법의 역할, 사회주의법의 해석적용문제, 법과정치(도덕)의 호상관계, 사회주의법무생활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 규범적 문건의 입법기술적 문제 등이 관심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2) 법이론분야의 연구자현황

또한 이 분야의 주요연구자로는 황금철, 강현학, 김정식, 리경철, 진유현, 김정옥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리경철의 연구활동이 두드러진다.

2) 헌법(행정법)분야의 연구경향 및 연구자현황

(1) 헌법(행정법)분야의 연구경향

〈표 4〉 헌법(행정법)연구의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	논문 및 저자
헌법일반이론	<p>“새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위력한 법적무기”(준박사 리명일, 1994)</p> <p>“국가주권의 본질과 지위에 관한 주체의 이론”(부교수 학사 류경만)</p> <p>“우리나라 인민민주주의헌법의 특징”(김경현)</p> <p>“우리나라 인민민주주의헌법에 규제된 공민의 기본권리의 특징”(김경현)</p> <p>“우리나라 인민민주주의헌법의 강화발전”(학사 백성일)</p> <p>“새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의 특징과 우월성”(박사.부교수 리명일,1999)</p> <p>“우리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헌법”(박사.부교수 리명일,2001)</p> <p>“헌법의 구성체계에 대한 역사적고찰”(학사 백성일)</p> <p>“공화국헌법의 발전과 그 특징”(최남혁)</p> <p>“헌법제정에 대한 이해”(학사 백성일)</p> <p>“사회주의헌법은 수령의 헌법”(학사 백성일,2003)</p>
헌법기구론	<p>“사회주의사회에서 공민의 권리의무제도의 본질과 특성”(준박사 안효식)</p> <p>“공민적의무의 본질과 내용”(학사 황금철)</p> <p>“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적 선거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우월한 선거제도”(부교수.학사 리명일)</p> <p>“공화국선거제도의 혁명적 본질”(학사 김희성)</p> <p>“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구의 우월성”(학사 허성근)</p> <p>“국가기구에 대한 일반적리해”(부교수 학사 류경만)</p> <p>“공화국국방위원회에 대한 헌법적규제는 당의 선군정치실현의 확고한 담보”(학사 허성근)</p>
행정법	<p>“행정법의 특징과 원천”(박사.부교수 리명일)</p> <p>“행정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박사.부교수 리명일)</p>

연구주제는 헌법일반론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주의헌법의 우월성, 인민민주주의헌법의 특징이 핵심주제이다. 행정법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도 주목할 부분이다.

(2) 헌법(행정법)분야의 연구자현황

연구자 중에서는 리명일이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했다. 리명일은 헌법분야뿐만 아니라 행정법분야도 함께 다루고 있다. 허성근과 백성일도 신진 연구자로서 리명일의 뒤를 잇고 있다.

3) 형사법분야의 연구경향 및 연구자현황

형법분야에서는 형법의 우월성, 범죄의 위법현상 예방책, 직무상 범죄 등이 주요 관심주제이고, 연구자로는 김근식, 김승문, 강석희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김근식은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형사소송법분야에서는 형사소송의 우월성, 증거재판, 인민참심제도, 피심자.피소자의 소송상 지위, 변호인의 지위, 변호사제도 등이 주요 주제이며, 연구자로는 리재도, 조병천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리재도가 대표적이다. 리재도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후보원사.교수.박사의 학위학직을 보유하고 있다.

사법검찰기관, 사회적 교양처분, 행정경제감시, 검열감독 등의 주제를 주 관심분야로 삼고 있는 연구자는 리창세가 대표적이다.

4) 민사법분야의 연구경향 및 연구자현황

민법분야는 민법의 특성을 비롯하여 민사채권의 본질, 민사시효, 민사법률관계, 민사관계당사자들의 지위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로는 윤종철, 조용봉, 리현숙, 리학철 등이 주요인물인 바 그 중에서도 조용봉이 제일 활발하게 논문을 싣고 있다.

민사소송법분야에서는 민사소송법률관계, 민사상소제도, 민사판결집행 등이 주요 주제이고 연구자로는 조용봉, 천정수, 차은정 등이 활동하고 있다.

가족법분야는 결혼제도, 립양제도에 대한 글이 보이며, 연구자로는 방영애, 리현숙 등이 있다.

5) 국제법분야의 연구경향 및 연구자현황

국제법분야는 국적문제, 국제조약, 국제기구, 국제우주법, 국제해양환경보호질서, 국제수송협약, 국제민사소송, 국제민사재판관할, 대외민사관계법, 무역중재, 국제사법, 해사분쟁,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 국제민용항공범죄 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연구자로는 박영수, 김성호, 정명선, 박명의, 김형기, 김춘영, 강정남, 리성혁, 한영서, 김운남, 림동춘, 리경철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박영수, 박명의가 대표적 연구자이다.

6) 경제법분야의 연구경향 및 연구자현황

경제법분야는 경제법의 일반이론에서부터 대외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무역계약, 공업소유권, 외국투자관계법,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 외국투자보호제도, 유가증권법 등이 주요 주제이다.

연구자로는 리성혁, 김형기, 김철희, 최정희 등이 활동하고 있다.

7) 기타분야의 연구경향 및 연구자현황

로동법분야에서는 김명옥이 로동법 전반에 대하여 독보적으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환경보호법에 대해서는 신분진이 주로 다루고 있으며, 199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분야로 ‘법률조종학’을 들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김원출과 리만수가 독보적이다. 특히 김원출은 경제학적 차원에서 법률조종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학보에서 거의 빠짐없이 게재되는 분야가 ‘자본주의 법의 반동성’과 남조선법에 대한 비판성 논문이다. 그리고 법제사차원에서 고대법사상가들에 대한 비판이나 조선시대의 법제에 대한 비판도 주요연구대상이다. 이 분야의 연구자로는 오인선, 김용철, 안효식,

한철만, 조광협, 정혁 등과 다른분야를 주로 연구하면서 비교법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리성일, 백성일, 박영철 등이 있다.

2. 법학저널(법학연구, 민주사법, 법학논문집, 정치법률연구)의 연구경향

1) <법학연구>의 연구경향

〈표 5〉 <법학연구>의 주제별 분류

분류	논문제목	저자(년/월)
법이론	‘우리나라경제발전에 대한 공화국 법의 역할’	조일호(56/1)
국가법	‘공화국 주권기관의 관리문건과 인민민주주의적 준법성’	김종일(56/1)
	‘국가행정행위에 관한 몇가지 문제’	김상현(56/2)
민사법	‘제품공급계약과 제품 인도인수에 관한 새 규정들에서 제기되는몇가지 문제’	장순명(56/2)
	‘농산물 예약 수매계약의 몇 가지 문제’	조일호(57/1)
	‘공화국 보험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김재교(57/1)
형사법	‘인민민주주의혁명수행과 국가주권적대에 관한 죄와의 투쟁’	한락규(56/2)
	‘병합죄에 관한 형벌량정’	주명도(57/2)
민사소송법	‘공화국 민사소송법에서의 처분권 원칙’	송국황(56/1)
	‘반소(맞소송)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문제’	리영호/주종순 (57/1)
형사소송법	‘피소자자백의 증거적 의의에 관하여’	박영성(57/1)
	‘공화국 형사소송에서의 수사의 위치’	리재도(57/2)
사법제도	‘공화국 검찰기관의 임무, 성격 및 그 조직과 활동의 제 원칙’	조성모(56/1)
	‘검찰기관 일반 감시사업에서의 실무적 몇 가지 문제’	최구현(56/2)
	‘공화국 재판소 조직 및 활동의 헌법적 원칙의 인민성’	리재도(57/1)
	‘공화국 국가기관체계에서 검찰기관의 위치’	김종일(57/2)
국제법	‘재일본조선인들의 법적 지위’	김진태(56/2)
	‘조선 정전에서의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법적 지위’	오형준(57/1)

분류	논문제목	저자(년/월)
법의학	‘저격무기의 사격거리 결정에 관한 문제’	박동설(57/2)
외국법	‘쏘베트형법에서의 국가 및 사회 재산 략취에 관하여’	김희철(57/2)
남조선 법 비판	‘리승만 정권 법령의 반민족적 반인민적 파쇼적 본질에 관 한 역사적 고찰’	한길언(56/1)
	‘한미우호통상및 항해조약의 매국적 본질’	주유순(57/1)

[법학논문집-〈법학연구〉 연 No6호]에서는 “법적용에 있어서 계급적 관점의 확립을 위하여”(경제 법학 연구소 법학 연구실),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무기로서의 공화국 검찰기관의 임무와 기능”(김중일), “미제 강점하 남조선 형사 <재판>의 반인민성”(리재도), “남조선 로동<립법>의 반인민성”(조몽우), “미국과 리승만 괴뢰정권간에 체결된 <협정>들의 예측적 및 매국적 본성”(경제 법학 연구소 법학 연구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행위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편집부) 등 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행위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편집부)라는 논문은 <법학연구>1956년 2호에 실린 김상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행정행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라는 논문에 대한 비판이다. 이것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의 영향이 학문에 까지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민주사법〉의 연구경향

〈표 6〉 〈민주사법〉의 주제별 분류

분류	논문제목	저자(년/월)
사법제도	‘당의 사법정책을 정확히 집행할 데 대하여’	허정숙(58/1)
	‘재판에서 판사독립의 원칙의 정확한 이해’	김철(58/4)
민 사 법	‘법인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	한 걸(58/1)
	‘민법상 대리 개념과 그 효과’	한걸(58/5)
	‘무효한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조일호(58/3, 58/4)
	‘민사상 청구권’	장진호(58/5)

분류	논문제목	저자(년/월)
	‘공급계약제도의 조직적 강화’	김재교(58/6)
형 사 법	‘투기업자와의 투쟁과 형사법령의 복무적 역할’	한락규(58/2)
	‘예비와 미수범과의 투쟁의 필요성’	심현상(58/3)
	‘공범의 개념과 그 형태’	김문연(58/4)
	‘공화국 형법에서 인과관계’	박성룡(58/6)
법 제 사	‘경국대전에 대한 개략적 고찰’	정진영(58/2)
민사소송	‘민사재판에서 검사들의 준법성 감시’	신현장(58/3)
	‘민사사건 심리에서 재판의 역할 제고’	윤주하(58/3)
	‘민사소송에 있어 민사판결과 형사판결간의 상호의무성’	윤주하(58/5)
	‘2심재판소의 권한’	홍권호(58/4)
	‘민사사건에서 공판전 준비수속을 간소화’	한창옥(58/6)
	‘화해사건의 정확한 처리’	김인옥(58/6)
	‘사회주의적 소유를 보호함에 있어 사소’	리주갑(58/6)
형사소송	‘공판준비를 정확히 진행하자’	김창수(58/3)
	‘형사소송에서의 검사의 역할’	리재도(58/5)
	‘형사소송에서 소추의 변경’	박성룡(58/5)
	‘비상상소와 재심’	최병렬(58/3)
법 의 학	‘신체손상의 경중정도에 대한 법의학적 평가’	박동설(58/6)

1950년대 후반에 주요관심 주제는 일반인민들에게 적용되는 법률문제였으며, 주요 연구자는 민사법에 조일호, 한걸, 김재교, 형사법에 리재도, 한락규, 심현상, 박성룡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법의학논문을 법학논문집에 게재하였다는 것이 주목할만하다. 법의학자로는 박동설이 대표적이다.

3) 〈법학논문집〉의 연구경향

(1) [8.15 해방 10주년 기념 법학논문집 제2집]¹⁷⁾

이 논문집에는 “공화국에서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몇가지 문제”(조일호), “해방후 공

17) 이 논문집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에서 1955년 8월에 발간되었다.

화국 공급계약의 발전”(김재교), “공화국 형법의 특성과 기본 원칙”(심현상), “공화국 인민재판제도의 10년과 공화국 최고재판소”(리재도), “위대한 조국 해방전쟁과정에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정권의 가일층 강화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한길언) 등 5편의 논문이 실렸다. 분야별로는 민법, 형법, 사법제도 등이다. 이 시기에는 아직 사회주의건설의 완성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2) [법학논문집 제9호] 18)

이 논문집에는 “지방정권기관의 사업체계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김종일), “지방 산업 공장들의 활동과 관련된 민법적 규제”(서창섭), “우리나라에서의 계약제도는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촉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의 충족을 보장하는 법적 수단이다”(김재교), “공화국 창의고안권법의 기본원칙과 창의고안권의 내용”(김양곤) 등 4편의 논문이 실렸다. 분야별로는 국가학, 민법, 저작권법에 대한 논문들이다. 당시에 창의고안권법이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3) [법학논문집 1] 19)

이 논문집에는 “사회주의헌법은 녀성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튼튼히 담보하는 위대한 법문헌”(김송월),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지방정권기관의 중요임무”,(조준석), “로동규율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필수적 요구”(윤정순), “사상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사회재산관리에서 중요”(최국봉), “수많은 파쇼악법으로 우리인민을 착취한 일제의 죄악”(장룡덕) 등 7편이 실렸다. 이 논문들의 특징은 김일성의 수령체제 확립과 사회주의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4) [법학논문집 2] 20)

이 논문집에는 “사회주의헌법은 우월한 헌법”(안천훈), “사회주의토지법의 규제내

18) 이 논문집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에서 1961년 4월에 발간되었다.

19) 이 논문집은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1975년 2월에 발간(사회과학출판사)되었다.

20) 이 논문집은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1980년 8월에 발간(과학,백과사전출판사)되었다.

용”(리필수), “우리나라 재판제도는 가장 혁명적인 사회주의재판제도”(리광명), “국제질서수립의 필연성과 방도”(박영수), “사회주의헌법은 국가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추동하는 강력한 무기”(안경훈) 등 5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들은 김일성 우상화가 절정에 다다른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연구논문집]²¹⁾

이 논문집은 헌법만을 다룬 논문집이다.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헌법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의 창시자’(심형일)라는 글을 필두로 ‘정치,경제,문화 분야의 제원칙들’(유승찬), ‘사회주의국가의 성격과 사명’(장석만), ‘정치활동분야의 제원칙’(최성근), ‘경제분야의 제원칙’(김경애), ‘문화분야의 원칙’(윤창준),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김종일), ‘주석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기관체계’(방계문),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헌법’(홍국표) 등 9편의 논문을 싣고 있다. 사회주의헌법을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4) <정치법률연구>의 연구경향

이 저널에는 ‘사회주의법무생활리론’(진문길),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법의 본질적 속성들인 일반의무성과 규범성에 대하여’(한석봉), ‘조선봉건국가의 형사법’, ‘형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최동진),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지켜야 할 원칙’(리만석), ‘국토는 국가정권수립의 물질적 기초’(전제철), ‘공적의무를 다하는 것은 공화국 국민의 마땅한 본분’(최성철), ‘소유권의 본질’(문철만), ‘계약상제외와 그 법적효력과 구속력’(리광찬), ‘공화국 민사소송리론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리황), ‘국제민사소송에서 관할 및 준거법’(손경원), ‘민사소송법률관계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차은정), ‘국제조약의 효력소멸조건’(림동춘), ‘국제조약문 작성에서 지켜야 할 중요원칙’(리경철), ‘국제무역결제법제도의 본질’, ‘국제무역결제법률관계의 발생기초’(홍철화), ‘위험담보조건은 <투자 장

21) 이 논문집은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1973년 8월에 발간(사회과학출판사)되었다.

려 및 보호협정>의 기본조건'(리명준), '부르조아형사소송에서 상소제도의 반동성'(박정철), '부르조아<법사회학>의 반동성'(김봉철), '범죄의 발생근원을 외국하는 부르조아범죄리론의 반동성'(박진혁) 등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저널에 나타난 연구성과들은 사회주의법무생활리론을 새롭게 제기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강화문제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또한 각 부문법들이 주체사상을 근본초석으로 하여 정립되고 발전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IV. 시기별 법학연구의 변화

법학연구의 변화과정을 위하여 시기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시점과 전후를 당 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다.²²⁾

1. 사회과학으로서 법학의 맹아기(1945-1958)

이 시기는 김일성종합대학 창설과 함께 설치된 법학부의 강좌를 중심으로 학문의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강좌가 국가 및 법이론 강좌, 형법강좌, 민법강좌이다. 정권수립후 헌법해석을 중심으로 각 강좌의 해석학적 교수방법이 강좌의 중심을 이루었다. 연구의 주요대상은 인민정권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시기에

22) 북에서는 법제정사를 통해 입법변천에 대하여는 시기 구분을 하고 있다. 즉, 제1단계: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법의 제정실시, 제2단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법의 제정실시, 제3단계: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시기 법의 제정실시, 제4단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법의 제정실시, 제5단계: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과 사회주의의 기초건설시기 법의 제정실시, 제6단계: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 법의 제정실시, 제7단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 법의 제정실시로 구분하고 있다(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1-3쪽).

는 법적문제에 대한 찬반토론이 비교적 활발했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법학분야는 세부 분야의 독자성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사회과학과목 교수사업이 당의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한 김일성의 강한 요구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²³⁾

이 시기는 북한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선진국가들의 과학적 이론들을 우리나라 현실에 기계적으로 도입하여 통째로 삼켜 버리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이른바 ‘교조주의, 인용주의,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²⁴⁾ 또한 과거의 부르조아 법학의 영향을 받은 조건하에서 개념 법학적인 잔재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비판과 자기비판 및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는 사업과 과학적 역할을 집결하여 집체적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이 부족하였다는 자기반성을 제시하고 있다.²⁵⁾ 이 시기 사회과학에 대한 인식에서는 ‘과학에서 비판과 의견투쟁이 없으며 집체적 연구와 호상협조가 없는 한 높은 과학적 분위기는 결코 조성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법학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법이론부문에서는 인민민주주의적 준법성에 관한 것을 중심문제로 다룬 논문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인민정권과 민주주의적 사회제도를 강화하는데에 법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부문법학에서의 중점연구해야할 분야로는 국가법, 행정법에서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민주주의적 제 원칙, 상설 및 임시위원회, 대의원들의 사업, 신소청원제도, 사회주의건설에서 산업 및 농촌경리관리의 제 문제에 대한 심층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법에서는 사회주의진영 국가들간의 친선관계의 국제법적 연구, 조선문제에 관한 국제적 회담과 협정들의 체계적인 국제법적 연구를, 민법, 노동법에서는 각종계약제도와 그의 정확한 실행보장대책의 연구, 전후시기에 전쟁과 관련되어 복잡하게 제기되었던 실무적인 민사분쟁들의 이론적 해명, 앞으로 채택될 민법전 편찬과 관련된 이론적 문제들의 연구, 노력배치, 노동보호, 노동생산능률제고 및 옳은 노임조직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제와 함께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

23) 김일성, “대학의 사회과학과목교수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 1949년 4월 18일”, 『김일성전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166-173쪽.

24)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와 공화국에서의 법학의 과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법학연구 1』(1956), 3쪽.

25) 위의 글, 5쪽.

를,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토지법에 대한 연구,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범죄수사학, 남조선법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²⁶⁾

2. 인민민주주의법학 시기(당 사법정책 관철 시기)(1958-1967)

이 시기는 법제정단계로는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과 사회주의의 기초건설시기’와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이다. 그러면서도 1958년에 나온 김일성의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라는 연설²⁷⁾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만큼 정치사회적으로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다가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 이후 대부분의 연구성과물들에서 당의 지도적 지침을 의식하게 되었다.

[민주사법] 창간호(1958년 1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허정숙의 “당의 사법정책을 정확히 집행할데 대하여”라는 논설을 시작으로 “낡은 부르조아적 법률관점을 철저히 청산하자”(오명섭), “우리나라에서 투기업자와의 투쟁과 형사법령의 복무적 역할”(한락규), “사회주의적 준법성을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김하운), “법은 사회경제제도의 반영이며 정치의 한 개 표현형식이다”(오명섭) 등의 논설을 통해 이전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백현제, 김경석, 백사취), “국가 공증일군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김하걸), “농업협동조합 소유에 대한 민법상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한 걸), “검찰일군들 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자”(우제일) 등의 논설을 통해 인민민주주의법학을 심화시키고 사회주의법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시기이다.

당 사법정책을 법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가 집중되었던 이 시기에는 “김일성 수상동지의 교시 실천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평양시 검찰소가 얻은 경험”(최학주),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강화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사법정책”(리재도), “재판할

26) 위의 글, 7-11쪽.

27) 김일성,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국 사법, 검찰 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58년 4월 29일”, 『김일성전집 21』(1998), 473-492쪽.

동에 대한 재판상 감독과 사법행정상 통제 기능의 강화는 재판사업 질 제고의 중요한 조건이다”(송국황) 등의 논설에 보듯이 김일성체제의 구축을 위한 사법의 역할에 중점을 둔 연구가 중심이었다.

3. 주체의 사회주의법학 시기(1967-1990)

이른바 5.25교시로 일컬어지는 문건²⁸⁾에서 과학(학문)에 대한 방향설정이 제시되면서 찬반토론이나 학문연구자의 독자성이 사라졌다. 김일성은 “일부 사회과학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못한 결과 이 나라 사람들의 리론이 옳은가, 저 나라 사람들의 리론이 옳은가 하면서 다른 나라의 것을 본 따려고만 하지 모든 것을 자기의 머리로 사고하고 맑스-레닌 주의적으로 분석할 줄 모릅니다.”라고 하여²⁹⁾ 기존의 학문방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김일성은 사회과학연구의 기본 방향에 대해 “사회과학분야에서는...당의 로선과 정책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해설선전하여야 하며 당의 혁명전통과 민족문화의 유산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³⁰⁾

이 시기는 사회과학 전반이 침체기에 접어든 시기이다. 다음 평가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대학들에서는 역사, 문학, 법학을 비롯하여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학생수의 30%를 넘지 않으며 그 나머지 대부분은 3대기술혁명과 나

28) ‘5.25교시’는 국내에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김동한 외,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법문사, 2004), 291쪽). 명칭에 나타난 1967년 5월 25일 김일성 명의의 문건으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관하여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7년 5월 25일”(『김일성저작집』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259-276쪽)이 대표적이다. 이 문건에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체를 철저히 세워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부분에서 과학자들의 좌우경적 기회주의견해와 사대주의견해를 비판하면서 과학자들이 갖추어야 할 주체적 기본자세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9) 김일성, “우리의 인테리들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함흥시 대학교원들앞에서 한 연설-1967년 6월 19일”, 『김일성저작집』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288쪽.

30) 『김일성저작선집』3권 127페이지(『조선중앙년감』1970, 289쪽에서 재인용)

라의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능력있는 기술인재들을 키우는 자연과학부문에서 공부하고 있다.”³¹⁾ 그리하여 이 시기의 논문들은 대부분 1) 중요국유산업 국유화법령발포 스물다섯돛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에 내놓은 해설논문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산업국유화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우리나라에서의 그 빛나는 승리>, 2) 남녀평등권법령 발포 스물다섯돛기념 전국여성사회과학토론회에 내놓은 논문 <혁명의 위대한 수령김일성 동지의 여성해방에 관한 사상을 구현한 남녀평등권법령 발포는 여성문제해결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역사적 사변>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1972년 사회주의헌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는 [주체사상연구에 복무하는 사회과학]³²⁾이라는 기치아래 “사회과학부문에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이론적으로 일반화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더 깊이 존중하여야 할것입니다”³³⁾라는 교시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더욱 심화되어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에 이바지하는 사회과학]³⁴⁾이라는 북한식 사회과학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조선중앙연감 1977년판(1976년 성과 정리)부터는 「법학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평가하고 있다. 1976년의 평가에서는 “법학분야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간에 체결된 비법적인 <협정>과 <조약>들의 침략성과 매국성, 그 반동적 본질을 폭로분쇄하는사업들도 진행하였다.”라고 하여 남조선 및 부르조아 국제법을 비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조선중앙연감 1977, 218쪽).

1977년의 평가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의 우월성과 독창성을 과학리론적으로 밝혀내는 연구사업, 국가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관한 이론 연구사업, 사회주의 국가법과 국가건설에 관한 이론의 위대성과 독창성을 해설선포하기 위한 연구사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건설사와 항일혁명투쟁시기 정권건

31) 「조선중앙연감」1975, 378쪽.

32) 「조선중앙연감」1975, 382쪽.

33) 「김일성저작선집」5권 462쪽.

34) 「조선중앙연감」1976, 339쪽.

설에서 이룩된 역사적경험들을 깊이 연구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연구사업들이 진행되었다(조선중앙년감 1978, 301쪽).

1978년에는 토지법의 우월성과 독창성을 과학리론적으로 밝혀내는 연구사업, 사회주의적민주주의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리론의 위대성과 독창성을 깊이있게 해설하기 위한 연구사업 등이 진행되었다(조선중앙년감 1979, 282쪽).

1979년에는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의 위대성과 창조성, 불패의 생활력을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론증하기 위한 연구사업,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헌법과 노동법, 토지법 등의 특성과 우월성을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되었다.³⁵⁾

1980년에는 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 연구, 국가주권에 관한 리론, 국가건설의 근본원리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국가의 본질과 사명, 사회주의국가활동의 기본방식,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원칙,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 사회주의국가의 지반, 사회주의국가의 기능, 사회주의국가의 사업체계와 방법, 사회주의국가의 법에 관한 리론, 인민정권건설 경험, 국가기구강화발전,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인 경험 등의 이론적 일반화사업,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사업이 진행되었다.³⁶⁾

1981년에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각 측면에서 연구, 사회주의제도 공고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국가와 법에 관한 리론, 국제법, 해운법에 관한 리론 등을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새롭게 체계화할 연구사업, 국가와 법의 계급적 본질을 외국하는 각종 부르조아리론과 기회주의리론의 반동성과 반인민적본질을 폭로비판, 법실무에서 나서는 실천적 문제들을 풀어나갈 연구사업 등이 진행되었다.³⁷⁾

1982년에는 국가와 법에 관한 사상리론, 국가사회제도와 법률제도, 국가와 법의 건설, 법건설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화, 국제법, 해운법을 비롯한 법학의 여러부문 법리론들에 대한 연구가 주요 연구주제였다.³⁸⁾

조선중앙년감 1984년판(1983년 성과 정리)부터는 법학분야를 '국가건설리론 및 법학

35) 『조선중앙년감』1980, 156쪽.

36) 『조선중앙년감』1981, 276쪽.

37) 『조선중앙년감』1982, 241쪽.

38) 『조선중앙년감』1983, 336쪽.

연구분야로 통합하여 국가건설리론을 함께 다루고 있다.

1983년에는 국가건설리론 및 법학연구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주제는 국가건설리론과 법건설리론의 해설 론증, 위의 이론을 일반화하고 역사적으로 체계화, 여러 부문법들을 해설선전하기 위한 연구, 국가건설리론과 법학부문에서 제기되는 이론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등이다.³⁹⁾

1984년에는 국가건설과 법건설의 역사적 경험을 일반화하고, 국가와 법리론의 개념과 범주들을 체계화하는 연구사업,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 국가사회제도 공고, 사회주의법무생활강화 등에 대한 연구가 성과로 나타났다.⁴⁰⁾

1985년에는 법건설사상과 리론에 대한 해설, 논증사업, 사회주의법건설의 기본원리, 립법에 관한 리론, 혁명적 준법기풍 확립 위한 이론실천적 연구, 해운법, 합병법 등의 연구가 성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제정사』가 출판된 점이다.⁴¹⁾

이 시기부터는 [국가건설리론 및 법학연구분야]를 [국가 및 법리론분야]명칭변경을 통한 연구성격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후계체제 구축과도 관련이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관련논문이 강조되고, 연구대상에 대한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정치리론, 국가리론, 법리론, 부문법연구분야로 구분하였다. 그 이후 국가리론, 법리론, 부문법연구라는 3개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1986년 「국가 및 법리론분야」의 연구성과로는 인민정권건설과 법건설사상리론 특히 준법교양과 혁명적 준법기풍확립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체계와 주권기관들의 법무활동을 강화하는 문제, 환경보호법의 규제내용, 국가사회재산관리와 법적 통제에 대한 이론문제 등에 대한 연구였다.⁴²⁾

1987년에는 「국가 및 법리론분야」를 「국가리론부문」과 「부문법리론연구」, 「인민정권건설과 법건설실천에 대한 연구」등으로 세부분류를 하여 정리하고 있다. 「국가리론부문」에서는 국가의 본질과 국가주권, 국가의 유형과 형태, 국가의 지도사상과 국가활동, 국

39) 「조선중앙년감」1984, 275쪽.

40) 「조선중앙년감」1985, 240쪽.

41) 「조선중앙년감」1986, 224쪽.

42) 「조선중앙년감」1987, 270쪽.

가의 기반문제를 비롯하여 국가리론의 기본개념들이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새롭게 연구해설되었고, 국가학설사에 대한 연구사업이 심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부문법리론연구’에서는 부문법들을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과 립법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 개별적인 부문법들의 효과 건설에서 역할 등이 연구되었고, 모든 법학리론을 주체로 수렴시킨 이론서들이 집필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주체의 국가관리법리론], [주체의 인민보건법리론], [주체의 노동법리론], [주체의 민사법리론]을 들 수 있다. ‘인민정권건설과 법건설실천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의 법무활동강화관련 연구, 혁명적 준법기풍 확립 방도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⁴³⁾

1988년에는 「국가 및 법리론분야」를 ‘정치리론부문’, ‘국가와 법에 관한 기초리론 부문’, ‘부문법연구’로 분류하고 있다. ‘정치리론부문’에서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정치이론의 기본골격과 체계를 새로이 완성하기 위한 학술토론이 여러 차례 진행된 데 기초하여 교재집필과 논문발표가 있었고, ‘국가와 법에 관한 기초리론 부문’에서는 인민정권에 관한 이론과 법에 관한 이론 연구, 주체적인 국가기관건설 이론연구,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에 관한 주체적 이론 등이 집필, 출판되었다. ‘부문법연구’에서는 전서형식의 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 가운데 <국가법제도>, <노동법제도>, <환경보호법제도>, <인민보건법제도> 등이 집필 완료되었다.⁴⁴⁾ 그리고 민법, 노동법, 무역법 등 부문법리론들을 심화시킨 연구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1988년에도 주체에 입각한 부문법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⁴⁵⁾

1989년에는 사회주의법의 기본원리, 본질과 사명, 기능 및 역할, 제정과 실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였으며, 「사회주의법에 관한 사상리론연구」, 「주체의 국가관리법리론」등을 출판하였다.⁴⁶⁾

1990년에 특징적인 것은 ‘정치리론과 국가와 법에 관한 기초리론부문’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학의 기본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정치학’

43) 『조선중앙년감』1988, 203-204쪽.

44) 이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노동법제도)]는 단행본으로 출판되기는 1994년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1988년에 집필을 완료했을 뿐 출판이 지연되어오다가 1994년에 이르러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45) 『조선중앙년감』1989, 256쪽.

46) 『조선중앙년감』1990, 170쪽.

이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학연구』라는 단행본을 출판하기까지 이르렀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국가관리학, 환경보호법리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유엔 국제인권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자체평가 하고 있다.⁴⁷⁾

4. ‘우리식 사회주의’법학의 시기(1991-현재)

이 시기는 1990년 12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김정일의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라는 연설⁴⁸⁾을 기점으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시점이다. 따라서 1991년에는 우리식 사회주의국가 법률제도의 특성과 우월성을 논증하기 위한 연구사업, 형법과 민법을 비롯하여 새로 채택 또는 개정된 법들에 대한 연구사업,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⁴⁹⁾

1992년의 성과에 대해서는 1991년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⁵⁰⁾

1993년에서 1998년까지는 국가 및 법리론 분야를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부문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민사법사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제도], [민법제도] 등 단행본이 집필되었고 새로 제정공포된 사회주의상업법, 산림법, 건설법 등에 대한 해설논문이 발표되었다(1994). 그리고 수산업, 어린이보육교양법, 전력법, 문화유물보호법 등 해설논문이 발표되었다(1995). 이 시기에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국가 법률제도의 우월성 논증 연구”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제반민주개혁실시 50돐 기념[법학논문집](3권수록)을 집필하여 출판하였고,

47) 『조선중앙년감』1991, 196쪽.

48) 김정일,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2월 27일”, 『김정일선집 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471-509쪽.

49) 『조선중앙년감』1992, 213쪽.

50) 『조선중앙년감』1993, 304쪽.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집필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법학연구의 성과가 전년도와 같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토씨가 약간 바뀌어 있는 것을 보면 집필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2년 계속 같은 내용과 주제의 연구성과만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사법 사전]의 집필이 완성되었다(1993-1995). 또한 관심있는 주요논문으로는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복무하는 위대한 정치현장>, <사회주의 법은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위력한 무기>등이 발표되었고, 1996년부터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준법교양서인 [법과 우리생활](인민보건법 편)이 집필·출판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법학 1,2,3권)이 출판되었는데 이런 류의 단행본은 각 분야별(경제학, 문예학)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법학계의 동향을 소개하면서 “주체의 정치법률사상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제(계)적인 모임을 진행하여 법학전문가들로 하여금 주체적인 정치법률사상을 정확히 해설·선전하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⁵¹⁾ 나아가 “정치와 법의 호상관계에 관한 주체적 리해”, “법과 인권”등의 논문을 통해 법일반원리를 심화시켰다.

1998년의 특징적인 연구주제로는 [국가상징에 관한연구], [주체년호의 특징] 등이 있고, 근로자들의 준법교양을 위해서 [사회주의법률관계에 대한 주체적 연구], [법과 도덕의 호상관계에 관한 연구], [법과 우리생활](환경보호법, 산림법, 형법편) 등이 출판되었다.⁵²⁾

1999년부터는 ‘국가리론분야’, ‘법리론분야’, ‘부문법연구’, ‘근로자들의 준법교양’, ‘남조선법 및 부르조아법 비판’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여 오고 있다. ‘국가이론’에서는 “사회주의국가 인민대표제에 관한 리론”, “공화국국가기구체계는 가장 혁명적인 국가기구체계”, ‘법이론’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법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사회주의적 준법의식에 관한 주체의 리론연구”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근로자들의 준법교양서로는 [법과 우리생활](토지법, 철도법 편)이 출판되었으며, 법학계에서 처음으로 [국제법사전]이 집필되었고, [행정경제감시에 대한 연구], [주체의 사회주의 검찰리론연구], [공화국합영법에 규제된 합영기업에 대한 법률적 고찰] 등의 부문법연구가 진행되었다. 남조선/미제에서는 “조선에서 감행한 미제의 국제법적 범죄와 그 책임에 관한 연구”,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책동의 반동적 본질”, “중군위안부 법

51) 『조선중앙년감』1998, 227쪽.

52) 『조선중앙년감』1999, 194쪽.

죄사건에 대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⁵³⁾

2000년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인민정권의 조직지도리론”,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강화에 관한 주체의 리론연구”, “사회주의국가 행정기관의 행정적 통제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국가기구의 우월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법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공화국 외국투자관계법의 발생발전과 그 체계”, “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에 규제된 무역계약의 준거법과 그것이 가지는 리론실천적의의”, “조선의 인적자원을 략탈하기위한 일제의 식민지파쇼악법연구”, “현대제국주의를 미화분식하는 <복지국가론>의 반동성”, “자본주의권방의 특징과 반동적 본질”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⁵⁴⁾

2001년에는 “우리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헌법”, “사회주의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주체의 리론”, “주체의 인민정권건설리론은 사회주의국가정권건설의 새로운 길을 밝힌 독창적인 리론”, “사회주의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 연구”, “우리 나라 사회주의토지법연구”, “국제무역중재연구”, “인권에 대해 론함”, “재일본조선인인권 연구”, “아동의 권리와 국제법”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⁵⁵⁾

2002년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준법성확립의 원칙적 요구”, “공화국헌법의 발생발전과 그 특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거제도연구”, “규범적 법문건의 명칭을 정하는데서 나서는 립법기술적 요구”, “준법의식과 공민적 자각”, “공화국토지법은 국토관리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무기”, “공화국민사소송의 담당자에 관한 연구”, “국제해운법제도의 본질과 특징”, “부르조아 <당사자주의>적 소송형식과 그 반동성”, “자본주의헌법에 규제된 <국민주권>의 반동성”, “독점자본의 리익을 옹호하는 미국대통령의 립법간섭활동과 그 반동적 본질”, “미국의 독선적인 강권행위는 국제법원칙들을 위반하는 범죄”, “국제법적 견지에서 본 일본의 조선강점의 비법성”, “총련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은 불법무도한 폭거”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⁵⁶⁾

53) 『조선중앙년감』2000, 201-202쪽.

54) 『조선중앙년감』2001, 190쪽.

55) 『조선중앙년감』2002, 175-176쪽.

56) 『조선중앙년감』2003, 198-199쪽.

2003년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법무생활리론은 사회주의법리론발전과 법건설실천에 불멸의 기여를 한 탁월한 리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실현의 위력한 법적 담보”, “법리론의 몇가지 문제”, “사회주의헌법건설에서의 수령의 령도”, “공화국국방위원회에 대한 헌법적규제는 당의 선군정치실현을 위한 확고한 담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법사”, “공화국 가족법에 규제된 결혼성립조건”, “행정법의 특징과 원천”, “공민적 의무의 본질과 내용”, “공화국의국투자보호제도의 기본내용”, “국제무역분쟁해결제도”, “해사분쟁과 그 해결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자본주의사회에 류포되고 있는<실증주의법학>의 반동성”, “부르쥔아<법사회학>의 반동성”, “부르쥔아<배심제도>의 반동성”, “국제통하기금협정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의 법적수단”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⁵⁷⁾

V. 결 론

북한에서 법학이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된 역사는 철학, 역사학, 경제학과 함께 한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하였던 것은 아니다. 경제법학연구소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김일성종합대학학보의 경우 1990년대부터 [력사법학]으로 편제가 되어 있다. 그것도 순서상으로 보면 력사, 정치, 법학순이다. 2003년부터는 [정치법률연구]라는 저널이 발간되고 있어 여전히 법이 정권에 복무해야하는 당위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학의 필요성과 고유성을 인정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법률연구가 법제정비사업과 더불어 르네상스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관리학이나 법률조종학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다는 것은 법학의 학문발전차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법률조종학은 경제학적 연구(우리식 표현대로라면 학제간 연구)인데 그것도 같은 사회과학내의 분야간 협동연구가 아니라 자연과학분야의 방법을 사회과학(법률학)에 원용하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리만수가 “법률활동에서 콧

57) 『조선중앙년감』2004, 194쪽.

퓨터망의 형성과 중요요구⁵⁸⁾라는 논문을 통해 법률활동의 현대화, 정보화를 강조하는 것도 주목할만한 연구이다.

북한에서 법학연구 분야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부르조아법 비판과 남조선법 비판이다. 북한의 법제에 대해서는 해석이나 해설은 가능하나 비판이나 토론은 없다. 반면에 부르조아법이나 남조선법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법과 북한법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비판의 강도가 높다.

북한의 법학연구에서 김정일시대 들어와서 나타난 특징의 하나가 국제관계(국제정치, 대외경제, 법제사)관련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이다. 개혁개방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또 다른 생존전략일 수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현상은 유엔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의 발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국제관계법 연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자기방어적이지는 않다.⁵⁹⁾

또 하나의 특징은 개별 법제에 대한 기초이론적 연구가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 형법, 행정법, 경제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법학의 학문체계를 수립하는데 기틀을 마련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에서 법학은 기존의 경우처럼 정치를 위한 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지위를 견지하는 차원에서 학문의 보편성을 염두에 둔 법학연구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8) 리만수, “법률활동에서 컴퓨터망의 형성과 중요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 법학-』제49권 제2호(2003), 63-67쪽.

59) 원향림, “해사분쟁과 그 해결제도에 대한 일반적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 법학-』제49권 제2호(2003), 68-73쪽.